

# 백성을 어여삐 여겼던 조선의 왕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다들 알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다. 실록의 기본 자료는 사관(史官)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실들을 기록한 사초(史草)였다. 사초는 왕조차도 볼 수 없었으며, 실록 편찬은 직전의 왕이 죽은 뒤 다음 왕이 즉위한 뒤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자신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한번은 세종대왕이 자기 아버지인 태종에 대해 쓴 기록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한데 신하들이 그 부당함을 들고 나서니 결국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는 어떤 임금도 심지어 연산군조차도 태종에 실록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태종부터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 오늘은 실록의 여기저기를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둘러보고자 한다.

\*농서(農書)에서는 대개 일찍 파종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지금의 수령들은 예전의 습관에 익숙해져 비록 파종 때를 당하고도 스스로 '망종(芒種)이 아직 멀다' 하고는 반반이 시기를 놓치곤 한다. 혹은 수령이 갑사에게 보고하여도 갑사는 호조에 이첩하고, 호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며, 이러는 사이 망종은 이미 지나가고 만다. 이래서야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도리라 할 것인가. 누구든 나와 함께 착한 정치를 하려는 자들은 내가 위임한 뜻을 본받아 미리 미리 조치하되, 너무 이르기도 말고 너무 늦게도 하지 말라."(세종 26년 윤7월25일) 세종 임금은 관리들이 농민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타성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태를 놓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진실로 '착한 정치' 하고 싶다면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은 참으로 지극해서, 심지어 잡초 제거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일일이 행한다. "금번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반드시 호미질로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릇 사람이 하는 일은 마땅히 진력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제조를 부지런히 권유하며 때를 잃지 않게 하여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권장할 때는 한갓 사납게 하는 것을 일삼아 독촉하고 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니, 이 뜻을 알아서 가혹하지도 완만하지도 않게 조치하라."(세종 28년 5월14일)

이제는 임금이 각 지방 관찰사(지금의 도지사)에

게 지시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농민들을 달랠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역시 임금이 어진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거야 '세종 같은 훌륭한 임금이 누가 그랬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임금도 다 그랬다.

"나라가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이 하는 처럼 우리르려는 것은 먹는 것이다. 한데 근년에 참혹한 기근을 여러 번 만나 굶어 죽는 자가 줄지 않고 있으니 한발쯤에 생각하면 아픔이 내 몸에도 있는 듯하다. 가뭄과 흉수가 어쩔 수 없는 재해지만, 도량이 수리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없는 재해이다. 그러나 식량을 넉넉히 할 방법에 힘을 다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현종 12년 2월21일)

세조 또한 어려운 백성을 살뜰히 살폈다. "지난해에 흉년으로 민간에서 일은 많고이고 농사짓는 동안 먹을 양식은 넉넉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밭갈이를 제때에 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환과고독(鰥寡孤獨)과 가난한 백성으로서 밭갈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요역(力役)에서 세금 대신 시키던 노동(力)을 너그럽게 해 주고, 먹을 양식을 대주어 농사에 때를 잃지 않게 하라."(세조 2년 5월12일)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모든 임금이 스스로 '제'를 치고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과덕한 내가 밤낮으로 조심하기를 범 범을 걷는 듯하고, 백성들의 주립을 내 몸 주린 듯이 염려하였으나, 장마와 가뭄으로 여름 보리가 영글지 못하고 가을 곡식이

익지 않았다. 재앙을 부른 허물이 실로 내게 있기에, 조세(租稅)를 덜어 곡식을 풀어 진휼(賑恤)을 행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에 힘쓰고 있지만, 은혜가 흡족하지 못하여 울부짖는 백성들이 처자를 이끌고 구멍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한 이는 세종 임금이다. "수령들 가운데는 공연히 진휼하는 겉치레만 떠벌리고 실제 혜택을 베풀지 않는 자도 있고, 기민(飢民)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자도 있으며,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방도를 모르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잘 살펴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중종 6년 10월 9일)

## '별의 순간'만 잡으려 하지 말고

최근 전남농업박물관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전라도 농업 관련 자료'란 책을 펴냈다. 앞서 인용한 내용은 모두 이 책을 뒤적이며 아무데서나 임의로 뽑아 본 것이다. 구백집십오 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조선시대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1893권 중 전라도 농업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농사 형태와 정책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로서는 이 책을 통해 당시 임금들이 백성을 얼마나 '어여삐' 여겼는지 새삼 느끼면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어리석은 백성이 할 말이 있어도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하니라. 내 이를 '어엿비 녀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여기에서의 '어엿비 녀겨'는 '예쁘게 여겨'란 뜻이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하여'란 뜻이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 바로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 하겠다.

바이흐로 대통령을 뽑는 대선(大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잠룡(潛龍)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고 물속에 숨어 있는 용)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지율에서 줄곧 수위를 차지하며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낙연·정세균 등 '빅3'(Big Three)가 지지 세력 확충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앞서가는 가운데 안철수·홍준표 등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너도나도 '별의 순간'을 잡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에게 잠 못 들고, 국민의 아픔을 내 몸이 아픈처럼 여겨고, 국민의 주립을 내 몸 주린 듯이 염려하는 이가 과연 있거나 한 것인지? 아무래도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이 혹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그들 또한 지나가나 백성을 생각했던 조선의 왕들을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 전남-경북, 대한민국 제2도약 새 중심축 다짐

상생협력 회의...8개항 협력 합의, 균형발전·자치분권 힘 모으기로

전남도와 경북도가 과거 민주주의를 태동시키고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은 핵심지역으로서 미래 대한민국 제2 도약의 새로운 중심축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이철우 지사를 비롯 실국장, 재전남 경북향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남-경북 상생협력 회의'를 열어 새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에 서기 위한 굳건한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8개 협력 사항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공동 실천운동 전개 ▲첨단 원천-응용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대형연구시설 유치 ▲경북 2021 3대 문화권 방문의 해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 ▲2021년 구미시와 2023년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이다. 또 ▲전남 마한문화 및 서남해안 갯벌과 경북 가야문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상호 협력 ▲혁신성장 연내 착공 및 올봄공차 조속 개항을 위한 공동 노력 ▲실

질적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도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이 될 신규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및 지역역사 시설세(원전세)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또 곤충산업 육성에 협력하고 보건환경 정보·정책 공유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하며 두 지역 여성단체 교류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예로부터 전남과 경북은 끈끈한 우정을 다지며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민주발전의 중심역할을 했다"면서 "선도국가를 향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로 힘을 합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동서화합의 큰 물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영호남은 단순한 교류와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 남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의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린뉴딜과 AI 등 제4차 산업혁명 주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 한때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경북과 전남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경북 상생협력 회의'가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임야 단독성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채분하기 힘든 전국 부동산 교환**  
하실 분. 010-3605-5000

##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 7월부터 야외 마스크 벗는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6월 1일부터는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활동에도 제약이 줄어들었다.

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약각 주거2중**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공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5만5천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집중기 ☎ 010-3635-7939**      **광주 북구 우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여수시 공고 제2021-1515호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7.

###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부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분	등급	류	번	호	면적(㎡)	기능	연장(㎡)	기	종	사	주	최	비
구분	소	번	호	면적(㎡)	기능	연장(㎡)	기	종	사	주	최	비	
신설	소	2	A	8.0	국지 도로	1,225	회안면 내전리 409-4도	377	일반 도로	-	-	-	-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4. 공고기간 : 2021. 5. 27. ~ 6. 9(14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 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할민청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이의 신고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공묘지의 다용의 이상장소로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동리 21-1, 21-2

2. 분묘기간 : 2021년 5월 21일(기) 21-22(기)

3. 개장업체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62-1 영동생묘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의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공묘지의 개장

5. 개장장소 : 장흥군 유치면 태리 산05-1(유치공설공묘지)

6. 안치기간 : 10일

7. 분묘기간 : 2021년 5월 21일부터 90일

8. 공고일 및 열람

9. 분묘(유연)이후 010-7225-0755 박준호

발안까지 규정공백 한정공공 010-3629-3697 박시영

9. 신고요청 : 신고자는 사면에 분묘위치를 확인한후발행되고 신고서에는 해당 분묘의 위치(주소, 면적, 분묘, 사상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 개장 공고 후 동일지역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될 분묘는 분묘의 공고는 장지와 동일할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4월 20일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27일

유한회사 런던

여수시 울촌면 연순로 1065

청산인 서규중

##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1년 5월 2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205,000,000 원을 금 155,000,000 원으로 50,000,000 원 감소하기로 하여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 10,000주를 각 주주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3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일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에 공고함.

2021년 05월 27일

모도산업 주식회사 200111-0551163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길 23-17(용전동) 대표이사 신용영

---

##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회사는 2021년 5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 금 97,000,000,000원 중 금 1,075,140,000원을 감소하여 금 95,924,860,000원으로 하고 자본감방법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1,400,000주 중 보유주식 215,028주에 대하여 감당사 회에서는 보유주로부터 1주당 5,007원으로 유상배제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중 보유주식 1,400,000주를 1,84,972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오니,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일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과 주 주권을 가진 사람은 주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전원출자 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로 177(신원동) 대표이사 허 훈

---

## ABC협회인증

##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만사**

신문구독 (062)220-0551  
예하구독 (062)220-0550

光州日報 062-2207-6900